

오늘의 성경 한 장

2026.6.8.(월)-2026.6.13.(토)

사무엘하 24 장 사도행전 1-5 장

이렇게 성경을 읽읍시다.

1. 기도: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게 해 주세요.”
2. 성경읽기: 성령님을 의지하여 질문하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3. 가정 기도문 읽기
4. 기도: 깨달은 내용을 감사하며 필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관악교회
고 신 중 회
Gwanak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08819 서울특별시관악구대학길 52(신림동), 3층

<http://www.GwanakChurch.org/> 전화: 070-8682-3991

사무엘하 24 장

하나님은 인구조사하는 다윗의 교만을 벌하셨으나, 제사와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 (찬송 6 장)

2026-6-8, 월

맥락과 의미

24 장은 21-24 장 전체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 A. 이야기: 사울의 죄, 하나님의 진노, 속죄 후 다시 기도 들으심 (21:1-14)
- B. 목록: 다윗의 용사들과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그들의 승리 (21:15-22)
 - C. 시편 찬송: 전사로서의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 (22 장)
 - C'. 시편찬송: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를 찬양 (23:1-7)
- B'. 목록: 다윗의 용사들과 그들의 승리 (23:8-39)
- A'. 이야기: 다윗의 죄, 하나님의 진노, 속죄 후 다시 기도 들으심 (24 장)

21:1-14는 사울의 죄에 대해(A), 24 장은 다윗의 죄(A')에 대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21 장은 사울의 죄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을 벌했습니다. 24 장은 백성과 다윗의 죄 때문에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두 경우 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왕으로서의 다스림의 결론은 사울/다윗의 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제사제도를 통해 용서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사용하여 승리를 주십니다(B, B'). 그래서 22, 23 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C, C').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1.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죄 (1-9 절)
2.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재앙 (10-17 절)
3.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통해 용서 표시 (18-25 절)

1.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죄 (1-9 절)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여 치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1 절). 이스라엘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에 가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1 은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했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사람들의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는 것을 그의 군대 장관 요압도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원래 인구 조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큰가를 자랑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체 인구는 130 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9 절).

2.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재앙 (10-17 절)

인구 조사 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냈고,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와의 공흠을” 믿으면서, 사람의 칼에 의해 징벌받는 것 보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전염병으로 직접 치시는 벌을 선택했습니다 (14 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전염병으로 7 만명이 죽게 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16 절). 천사에게 심판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진노를 거두신 것을 다윗은 몰랐지만, 그 때에 자기 범죄 때문에 백성을 벌하지 말고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벌해 다라고 기도했습니다 (17 절)

지도자의 잘못과 백성의 잘못이 얽여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두 왕의 잘못으로 백성이 3 년의 기근을 경험하거나 전염병으로 7 만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이 명백했고, 그 부분에 대한 회개와 속죄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백성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강력히 왕을 요구하였습니다(삼상 8:20). 사울이

민족주의적인 생각으로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잘못도 범하였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열방처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지도자와 같이 열방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자기의 지도자들이 이룬 것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지도자와 백성의 연대성에 대하여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대감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구원에서도 나타납니다.

3.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통해 용서 표시 (18-25 절)

그 날,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라.” (21 절). 그 장소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습니다. 아라우나는 자기 땅과 소와 소의 명예를 제사 지내는 용도로 공짜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값없이” 즉 남의 희생과 헌신으로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24 절). 그 땅을 사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해서 드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것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은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시간,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민수기 16:48,50 에서도 하나님은 제사장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공로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신 것 (16 절)을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사제도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회개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주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18 절)은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으며, 나중에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됩니다 (역대하 3:1). 죄와 심판, 회개의 사건을 통해 미래의 성전부지가 만들어 집니다.

민고 복종할 일

이스라엘도 죄인들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 힘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윗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시면서도 오히려 제사제도를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먼저 용서하셨지만, 백성들에게는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여 용서를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죄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성전을 지을 터를 사게 하여 언약백성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 안에서 이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그런 교만과 인간을 신뢰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합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였듯이 우리도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

다윗과 구약 왕국의 이야기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예배를 통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구약 백성보다 더 분명히 죄용서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구원은 은혜지만,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다윗 처럼, “내가 공짜로 예배하지는 않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 다른 즐거운 일을 포기하고 교회로 모이는 것,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 우리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맙시다. 그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25 절, 간구(야타르)

간구(야타르)는 21:1과 24:25에 반복됩니다. 수미상관으로 21-24장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할 때 모세가 간구하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출 8:8,9,28,29,30, 9:28, 10:17,18).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집트에 대한 그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 이집트와 파라오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다윗의 기도와 함께 제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참고> 다윗의 인구 조사(출처: ESV 성경 지도)



사도행전 서론

1. 저자: 누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골 4:14),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몬 1:25). 그는 바울이 로마에서 체포되어 순교할 때까지의 시기를 바울과 함께 보냈습니다(딤후 4:11).

누가는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골 4:11,14). 이러한 그의 배경이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여러 증인들과 증거들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이를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였습니다. 사건들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여러 인명이나 지명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기록 시기와 장소: 60년대 초, 로마(?)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는 아직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이전 시기인 60년대 초로 짐작됩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까지만 언급하고 순교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로마의 관원들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주후 64년 이전에 사도행전이 쓰여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장소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로마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던 기간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증언을 들으며 그 내용을 사도행전에 반영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3. 수신자: 데오빌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수신자를 “데오빌로”라고 언급합니다. 데오빌로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가 이 특정한 인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책들을 썼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당히 유력한 인물인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리로서 본래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에게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알려주고 복음을 더욱 깊이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들을 썼습니다.

또한 누가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다 더 넓은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책들은 초대 교회에서 널리 읽히며 이방인 불신자들과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4. 개요

1. 베드로와 이스라엘에서의 교회의 시작과 확장

- 1)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1 장-9:31)
- 2)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99:32-12 장)

2. 바울과 이방인 지역 전도: 로마까지(13-28 장)

- 1) 브루기아와 갈라리아 땅(13-15 장)
 - 1 차 전도여행-소아시아 지역(13-14 장)
예루살렘 공의회(15 장)
- 2) 마케도니아-그리스 전도(15:36-21:16)
 - 2 차 전도여행(15:36-18:22)
 - 3 차 전도여행(18:23-21:16)
- 3) 바울의 묶임과 로마로(21:17-28 장)
 - 예루살렘에서 복음 변호와 고발당함(21:17-23 장)
 - 가이사라에서 총독 앞에서 재판(24-26 장)
 - 최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로마에서 전도(27-28 장)

사도행전 1 장

그리스도의 승천, 유다를 대신하여 맛디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음 (찬송 16 장)

2026-6-9, 화

맥락과 의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쓴 성경입니다. 두 책 다 데오빌로 에게 쓴 편지형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1-2 는 누가복음을 요약합니다. 1:3-14 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24:36-53)을 반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능력으로 옷 입도록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성전에 돌아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어서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은 하늘에 있으면서 영으로 땅에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1-12 장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13-28 장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사도와 말씀 사역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2천 년 전부터 세워진 “그리스도의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 일하시는 삼위 일체 하나님의 일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다시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1. 그리스도는 성령님 파송과 다시 재림을 약속하며 승천(1-11 절)
2.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림 (12-14 절)
3. 배반한 유다를 대신하여 맛디아를 12 사도의 하나로 세움 (15-26 절)

1. 그리스도는 성령님 파송과 다시 재림을 약속하며 승천(1-11 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3 년 동안 가르치신 것을 부활 이후에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칠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나라로 들어옵니다(눅 24:47).

사도들은 먼저 회개하며 그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더 많은 사람에게 확장할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실력을 갖추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위에 오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6 절, 사도들은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 때입니까?” 그들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나라를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하실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는 생각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정치적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스라엘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7 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능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는 일입니다. 그 때는 알려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알려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불필요하게 호기심을 가지지 맙시다.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불필요한 호기심을 추구하다가 에덴의 복을 잃은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직분에 집중합시다.

또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확장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8 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은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실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그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으로 되었기에 먼저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뒤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3 년 동안 인턴 목사로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성령 강림과 능력을 받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전파자로 제대로 준비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천사는 증거합니다. 11 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동안은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계시면서 교회의 머리로서 온 땅을 다스립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직분자의 말씀 전파와 교회의 권징하는 일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 곳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2.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림(12-14 절)

12 절,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는 감람산의 베다니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눅 24:50-53).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던 그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12 절)은 안식일에 갈 수 있도록 관례적으로 허용된 거리를 말합니다. 1.1km 정도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성령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14 절, 다락방에 올라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계속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렸습니다(눅 24:53).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면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이름 부르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을 배웁시다. 자신들의 열정을 따라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시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적절한 때에 움직이도록 합시다.

우리는 성령님이 이미 오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계속하여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보내고 있다, 누가복음 24:49)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지만, 계속 오시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시다.

3. 배반한 유다를 대신하여 마티아를 12 사도의 하나로 세움(15-26 절)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습시다. 아무리 큰 죄라도 죄책감으로 자기를 확대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의 증거의 말씀을 통해 확장됩니다. 한 명의 사도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은 베드로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는 열한 사도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았습니다.

16 절,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20 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시편 69:25).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시편 109:8). 이 말씀이 바로 유다에게 적용됩니다.

유다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님은 구약 백성들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도 같은

말씀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유다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직무의 부분”(17 절), 그 “직분”(20 절)은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직분을 맡겼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었듯이 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직무의 부분을 제비로
나누게 합니다.

구약의 일반인들은 자기의 땅을 제비 뽑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섬길 당번을 제비 뽑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복음을 통해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복으로 받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은 각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십니다. 사도들 자신이
먼저 제비 뽑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세우실 때 먼저 교회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추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들 중에서 2 명을 추천했습니다. 바사바, 유스도, 요셉 등 세 개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과 맛디아 두 명이었습니다. 제비 뽑았는데 맛디아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12 명의 사도를 보충했습니다.

교회가 제비를 뽑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도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비뽑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24-25 절, “뭇(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라 보이시옵소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전에 땅에 선생으로 계시던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요 여호와라고 사도들은 고백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2,24 절). 교회는
직분자를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비 대신에 투표를 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분별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목사, 장로, 집사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판단하여 투표합니다. 지금도 직분자를 뽑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직분자를 뽑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비 뽑아 받은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정해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민고 복종할 일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서 다스리는 그리스도는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동안에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교회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말로 복음 전하는 일은 주로 목사가 하지만, 모든 성도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회 있는 대로 입술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여 그 나라를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이루십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말씀을 풍성히 주시도록,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새로운 생명에서 계속 성장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사도의 직분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말

17,25 절에 “직무”, “봉사”(디아코노니아, 식탁에서 섬기는 중)

17 절에 “부분”(클레로스, 제비 혹은 기업),

20 절에 “감독”(에피스코포스, 돌아보는 것)

25 절에 “사도직”(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사람)

22 절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직무”(마르투스, 증인),

사도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직분을 제비 뽑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사도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적 식탁을 섬기는 중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아보는 감독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복음 전도,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의 형성
(찬송 438 장)**

2026-6-10, 수

맥락과 의미

2 장에는 세 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제자들의 모임에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그들의 찬양을 듣고 술이 취했다고 빈정거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셋째, 복음을 들은 교회는 사도들 중심으로 모이며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1. 오순절 성령 강림 (1-13 절)
2. 베드로의 증언 (14-36 절)
3. 회개하도록 초대 (37-40 절)
4.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 (41-47 절)

1. 오순절 성령 강림(1-13 절)

오순절은 유대인의 3 대 명절 중의 하나입니다. 유월절부터 50 일째 되는 날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7x7=49 일). 유대의 달력으로 3 월 6 일이고, 지금 달력으로는 5-6 월입니다.

이 날은 첫 추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첫 열매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지 49 일째 되는 날입니다. 승천하시고 10 일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교회에 나누어 주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맺으시는 첫 열매 성령님을 주시는 날입니다. 성령님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1 절, 오순절 날이 “이르다”는 것은 날이 “함께-충만하다, 충만하고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51 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에서 “차가매”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는 날이 충만한 것이 오순절 날이 충만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날이 찬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4 절)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실 날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곳에 모여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1:14). 성전에서 하나님을 축복하며 찬양했습니다(눅 24:53).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2 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3 절,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분 위에 비둘기와 같이 시각적으로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너희 “위”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행 1:8, 눅 24:49).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땅에 계시던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지체들로서 한 마음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합시다. 기도는 성도들이 다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2 절, 소리가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소리가 가득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충만”은 ‘가득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소리가 집에 가득하고 성도의 마음에는 성령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곳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고 말씀 전파자로 임명받았습니다.

3 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불은 위쪽으로 올라가며 여러 개의 불꽃(혀)으로 올라 갑니다. 이번에는 불같은 것이 하나로 내려와 여러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성령님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나누어 주시는 것과 같이 분배되었습니다(수 21:40). 로마서 12:3 에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땅과 기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3 절,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여(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땅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위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성령님이 그들 위에 앉아 계실 때 성령 받은 성도들도 앉아 있습니다(2 절). 직분자와 교회는 함께 앉아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4 절, 그때 모인 사람들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11 절,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12 절). “하나님은 크시다”고 찬양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임신한 후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눅 1:47), “큰 일”(눅 1:49)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큰 일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큰 일을 합니다. 이것을 사도와 교회가 찬양합니다.

우리도 물로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임명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성령님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에 충만합니다(창 1:28). 세상에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앉아 있듯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4 절) 것은 그 당시의 보통 언어(아람어)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14 절)와 같은 단어입니다. 처음 찬양은 외국어/방언으로 했지만, 전도는 모국어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선택하신 언어로,

때로는 외국어로 때로는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찬양하고 전도의 말을 했습니다.

방언, 즉 자기가 전에 알지 못하는 말을 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방언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한다면 올바른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세계 곳곳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10 절)이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그 나라들의 말로 사도들이 찬양했습니다.

온 세계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 방언으로 상징합니다.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말이건, 다른 나라 말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방언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에 흩어진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는 각자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계 교회는 여러 나라 말(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인 우리가 굳이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방언을 주시면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할 것은 우리 말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언(한국말)으로 기쁘게 찬양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2. 베드로의 증언(14-36 절)

사도들이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은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이 술에 취했다.”

열한 사도가 함께 서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때 시간은 아침 9시(제 3시)이므로 술을 마시고 취할 시간이 아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목격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증거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시작할 때마다 “청중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14 절), “이스라엘 사람들아”(22 절), “형제들아”(29 절).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37 절)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1) 요엘서 2장의 성령강림 예언으로 증거 (14-21 절)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보통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구원의 때라고 하며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21 절).

성령의 오심은 이제 그 구원의 때가 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나누고 삶으로 복음을 나누시다.

2) 시편 16편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22-28 절)

다윗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한 것을 시편 16편에 기록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27 절) 하면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3) 시편 110편 그리스도의 승천, 주님과 왕으로 다스리심의 증거 (29-36 절)

34 절, “주(하나님)께서 내 주(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5 절,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하나님)과 그리스도”(36 절)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33 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일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3. 회개하도록 초대(37-40 절)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과 유대에 입교한 사람들이 “형제 사람들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4.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41-47 절)

그날 복음을 듣고 세례 받은 사람이 3천명이나 되었습니다.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41 절)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이미 있는 제자 공동체(교회)에 덧붙여집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찬송과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서로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은혜의 수단을 풍요롭게 사용했습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무리를 “더하게 하셨습니다”(41,47 절).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에 따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때, 그 찬양은 세상을 향하여 울려 퍼집니다. 교회는 확장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믿고 복종할 일

오순절에 교회에 오신 성령님은 계속 교회 위에 오시고 있습니다. 성도들 위로 오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기쁨 가운데 바른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지금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예배에, 가정 기도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들(재정을 포함)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서로 돕습니다.

교회에 모여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 삶의 우선 순위를 둡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과 삶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감사, 찬양하며 가정을 세우고 직장생활 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흘러 넘쳐서 다른 성도들의 삶을 세우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합시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복음이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가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3 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디아-메리조)= “나뉘어진다”
=여호수아 21:40, 로마서 12:3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디아-메리조)는 “나뉘어진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수 21:40).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 땅은 신약 교회에는 성령님이십니다.

같은 로마서 12:3 에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구약 백성의 땅은 각 가정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요 공동체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도 개인의 것이지만 교회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으로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사용합시다.

<참고> “하나님의 큰 일”(메갈레이아)(11 절)=마리아의 노래(눅 1:47,49)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메갈레이아)을 말했습니다(11 절). “하나님은 크시다”고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임신한 후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메갈로티네, 눅 1:47), “하나님의 큰 일”(메갈라, 눅 1:49)을 말했습니다.

<참고> 충만: 오순절 날이 이르매(숨-플레로오, 1 절), “은 집에 가득”(플레로오, 2 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플레로오, 4 절),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1:28)

오순절 날이 충만했습니다. 집에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은 개인을 충만케 하면서 성도의 공동체 집을 충만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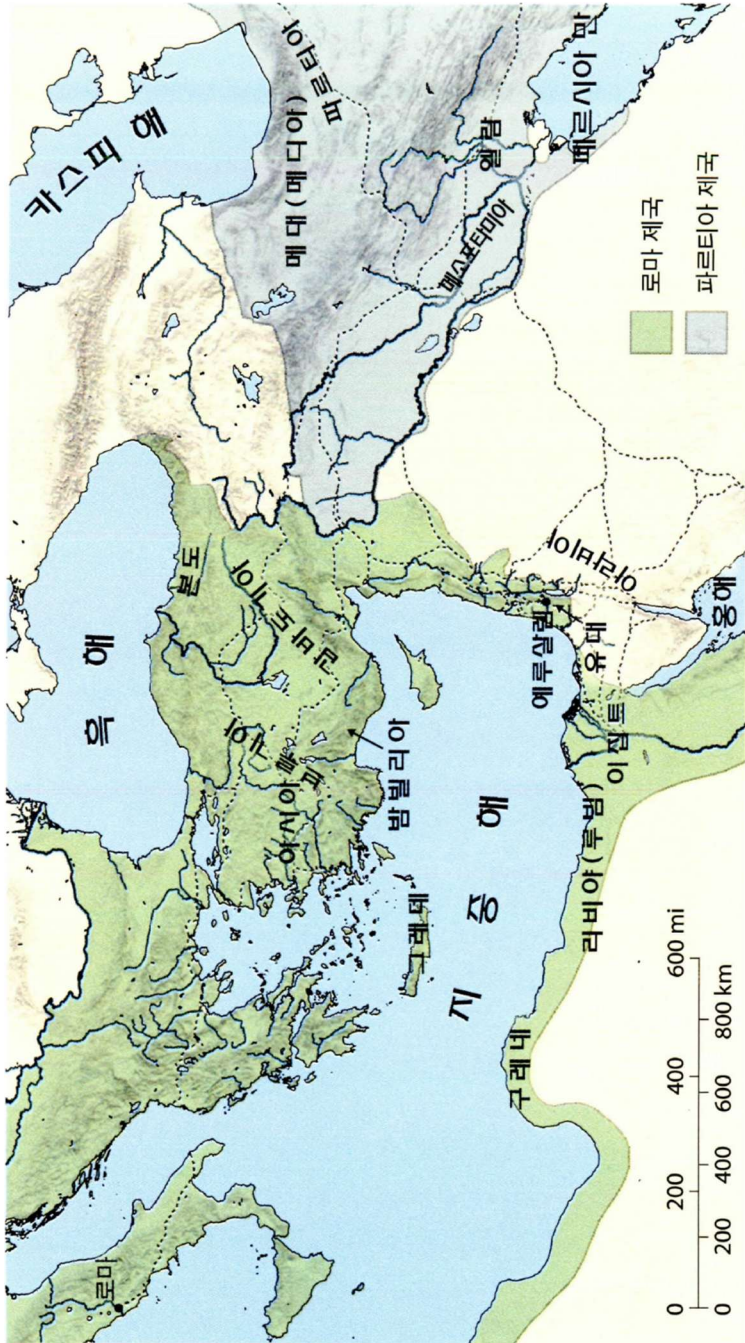
이것은 창세기에서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고> 4 절,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프탱고마이, 4 절)=베드로가 (당시의 언어로) “가로되”(아포-프탱고마이)

성경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보통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 사이에 큰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시대에는 방언으로 말하기도 했고 보통 말로 말하기도 했지만, 사도시대가 지나간 다음에는 일반 말로 찬양합니다.

<참고> 오순절 당시의 여러 나라들 (출처: ESV 성경 지도)



**얇은뱅이를 고치는 것을 통해
영적 회개와 회복의 복음을 전함
(찬송 시편 103 편 1-4 절 – 악보는 주보와 홈페이지 참고)**

2026-6-11, 목

맥락과 의미

2 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때에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인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과 시편에서 약속된 성령 오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메시아)로서 부활 승천했음을 증거했습니다.

3 장 이후에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 1. 얇은뱅이가 일어난 기적 (1-10 절)
- 2. 베드로의 증거: 치유와 찬양은 전도, 죄용서, 거룩을 함함 (11-26 절)

1. 얇은뱅이가 일어난 기적(1-10 절)

1 절, 제 9 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오후 3 시입니다. 구약 율법에는 하루 두 번 번제를 드리는 시간(오전 9 시, 오후 3 시)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것이 관행입니다. 또 오후 세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임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눅 23:44).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 시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의 미문(아름다운 문) 앞에서 얇은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장애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슬픈 장면입니다.

4 절, 베드로와 요한을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14 장 9 절에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얇은뱅이에게 “주목하여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그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마술을 부리듯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사도는 성령을 따라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6 절,”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는 은과 금으로 일하는 경제 기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일하는 사명을 받은 기관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7 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장애인 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장애인은 일어났습니다.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치유를 받은 목적은 성전에 들어가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9 절). 지금도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뛰는 것(8 절)은 이사야 35 장 6 절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뿔 것”이라는 메시아 시대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35 장은 메시아(그리스도)가 치유할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이 넘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5 장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1 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10 절)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서 메시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대리인인 사도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에서 치유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치유된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성전에 달려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으로 치유를 줍니다.”

교회가 병의 치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와 사도들의 시대에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은 교회와 성도는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하실지 하지 않으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 때 교회는 치유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더 중요하게는 사랑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에 대한 표적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또 다른 표적은 세례와 성찬의 표였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주신 눈에 보이는 표적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또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돕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돕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제받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회복되어 사람됨의 사명을 다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된 회복은 건강만이 아니라 인간성 전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스스로 독립하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구제받은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정서적인 위로를 줍니다.

이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 찬양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이 나라에 들어오게 도움시다.

2. 베드로의 증거: 치유와 찬양은 전도, 죄용서, 거룩을 향함(11-26 절)

11 절, 모든 백성이 기적을 보고 놀라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성전 마당 안에 있는 누각입니다.

12 절,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한 성도가 질병을 치유받은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복음 전도로 이어집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12 절) 이 말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지 않으면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과 은혜가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13 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중 예수를 영화롭게(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나님이 메시아(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시고 다시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이사야 42 장, 52:13, 53:11). 병자가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일에서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다”(13,14 절)고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던 그들 유대인들이 지은 죄를 지적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 복음은 불신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계속 죄인됨을 선포해야 합니다. 죄인됨을 알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점점 더 알아갈수록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죄를 점점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서 성장합니다.

15 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교회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16 절,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못 걷는 자를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19 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살인자들, 그것도 하나님을 죽인 반역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입니다.

“없이 함”은 기름으로 씻어 없앤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유쾌하게 됩니다. 영혼이 새롭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20 절, 영혼이 새롭게 될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을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내 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성령님의 오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매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성령을 계속 새롭게 선물로 받는 이 복을 누리시다. 우리가 가장 간구해야 할 복은 이 영적인 복입니다.

21 절, “만유를 회복(다시 세움)하실 때(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이 마땅히 받아 두리라.” “마땅히”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 받아야만 했습니다. 부활해야만 했습니다(눅 24:46). “고난을 받고 그분의 영광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눅 24:26). 것처럼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 두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도들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단계를 더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입니다.” (15 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알려 주신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눅 24:47,48)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죽음과 부활, 죄사함의 회개를 전파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먼저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눅 24:36-43).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분이 음식을 먹는 것을 눈으로 본 것이 증거의 자료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모세의 율법, 선지자들, 시편들) 전체가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 부활, 죄용서에 대해 가르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눅

24:44-49).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관해”(눅 24:44) 가르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아래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증인들이 사용할 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 성경을 가르치며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 위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눅 24:49, 행 1:8)

베드로는 약속대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구약 성경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합니다. 다음과 같이 구약 성경의 세 부분을 인용하며 복을 전했습니다.

① 22 절, 신 18:15-16,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② 23 절, 레 23:29,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24 절, 사무엘 시대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③ 25 절, 창세기 22:18,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언약을 그의 후손의 시대에, 사도들의 시대에 성취된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언약의 복을 누리는 복음을 사도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26 절, 이 복은 중(예수)을 통하여 악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만민이 복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됩니다.

믿고 복종할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고, 또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매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가도록 기도합니다. 사랑, 평화, 기쁨, 자비와 착함, 모든 좋은 성령님의 열매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냅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베드로가 증거할 때 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고, 읽도록 합니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2 절, 미문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세워진 청동으로 만든 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호라)과 “아름다운 문”(호라이오스- 때에 맞는 아름다움)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참고> 사도들이 못 걷게 된 이를 치유한 것과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장모 치유의 결과는 하나님 찬양/교회 섬김

사도들이 못 걷는 사람을 치유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것과 비슷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파라크레마)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섬기다-디아코네오).”(눅 4:39) 예수님께서 명령할 때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목적으로 그녀는 곧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걷지 못하는 자의 발과 발목이 곧(파라크레마) 힘을 얻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행 3:6).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행 3:6).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시던 일을 하늘에 몸으로 계시면서 이 땅에서 사도를 통해서 계속 하십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병을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신 목적은 인생을 그냥 즐기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참고> 사도들의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에서 기이히 여김과 놀람(10 절)

예수님의 기적들과 사도들의 기적에서 연속성이 있음은 다른 면에서도 발견됩니다. 사도들의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심과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과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의 걷지 못하는 자: 행 3:10,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를 보고 “심히 기이히 여기며(플레로오 타움보스-기이함이 가득하고) 놀라니라(엑스타시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 눅 5:7-9, 기적으로 고기 잡음과 놀람, 베드로 등 네 명의 어부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기적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가 배를 채웠습니다(플레로오, 눅 5:7). 그 때 “놀랐습니다”(타움보스 9 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8 절).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치료: 눅 5:25-26,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치유했습니다. 그 사람은 “25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 모든 사람이 놀라(엑스타시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하며(두려움이 가득하여, 플레로오)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기적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가득하게 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은 회개,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부름받음, 하나님께 영광돌림이라는 사명을 다합니다.

<참고>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 시대의 땀(알로마이)과 치유받은 견지 못하는 자의 땀

구약에서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견지 못하는 자가 뛰게 된 것(알로마이, 엑-알로마이, 8 절)은 이사야 35 장 6 절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땀 것”(알로마이)이라는 메시아 시대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 장

사도들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과 석방, 성도들의 기도 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나눔 (찬송 198 장)

2026-6-12, 금

맥락과 의미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시다. 이 땅에 사도들 위에 성령님이 오셨습시다.

사도들은 복음 증거를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았습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용서로 초대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믿으십시오. 그 이름으로 세례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용서를 선물로 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전도를 듣고 3 천 명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가입했습니다. 말씀과 성찬으로 예배하고 재산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3-5 장은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습시다. 이것을 보고 물려든 백성에게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장에서 그들의 전도로 믿는 무리가 남자의 수가 5천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 핍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눅 20, 23 장).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신 고난입니다(눅 21 장). 그러나 고난받는 교회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을 고칩시다. 병고침을 통해서 다시 복음전하는 사명을 완수합니다.

1. 산헤드린 공회의 심문과 복음을 전함 (1-12 절)
2. 협박하고 내어보냄 (13-22 절)
3. 교회로 달려가 함께 기도하고 능력을 받음 (23-31 절)
4. 고난 후에 교회는 더 성장 (32-37 절)

1. 산헤드린 공회의 심문과 복음을 전함 (1-12 절)

1 절, 성전 맡은 자는 성전에서 일하는 군인들입니다. 2 절,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은 복음의 사실을 읽는 것입니다. 선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가르침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더 자세히 새롭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이스라엘의 국회)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4 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지니라.” 말씀 전하는 자는 갇히더라도, 말씀을 갇히지 않고 일합니다.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 일합니다.

다음날입니다. 5 절, 사도들을 공의회에서 심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기 전에 심문당했던 그곳에서 제자들도 심문당합니다(눅 22:66-71). 7 절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전에도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께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마 21:23) 질문했습니다. 제사장이 복음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고 권세만 주장했습니다.

8 절,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말할 내용과 함께 말할 담력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 이름에서 담력이 왔습니다. 그들은 재판받는 것을 복음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병자였던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고,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고 전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던 주간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 일어난 사건이 계속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를 주었느냐?”(눅 20:20:2) 그들은 예수님께 했던 말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담대하게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도 위기를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기회로 삼읍시다. 말로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합시다.

2. 험박하고 내어보냄(13-22 절)

13 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제사장의 무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학문 없는(13 절) 사람이 학문이 깊은 서기관(5 절)보다 더

말씀을 잘 알고 전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13 절).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곁에 병나은 사람이 사도들의 능력의 증거로서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눅 8:25,9:43).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습니다(눅 4:2). 특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성전에서 대답하시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눅 20:26). 몸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땅에서 사도들 안에 살아서 놀라운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일파는 사도들을 헐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성도를 헐박합니다. 헐박이란 거짓말의 한 종류입니다. 사실상 힘이 없는데도 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에게 있지도 않은 것,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허깨비와 같은 거짓말에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하심이라는 이 진리에 굳게 섭시다.

베드로는 도전합니다. 19 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의 몸은 사단과 사람이 헐박하는 세상의 법정 앞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그냥 헐박만 하고 내보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함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에 확신할 때 나오는 태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합시다.

직분 앞에 담대합시다. 복음 전해야 할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헤쳐갈 방법도 주십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갑시다.

3. 교회로 달려가 함께 기도하고 능력을 받음(23-31 절)

사단의 하수인으로부터 헐박을 당할 때, 그들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동료(23 절)”는 “범인”(13 절,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비범한 말과 행동은 교회에서 공급받는 지혜와 힘에서 나옵니다.

교회는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5,26 절에서 그들은 지금 시편 2 편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계획하는가)?”(시편 2:1,2)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성취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왕인 헤롯이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와 공모하여 기름부음 받은 종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계획(작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희생하려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예정을 사람들의 악한 계획과 행동을 통해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들이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29 절에 그들은 “주여”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부활하게 하여 하늘에 앉게 하신 천지의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위험과 위협을 피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 힘껏 사명을 다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30 절, “하늘에 계신 주님이 손을 내밀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에게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표적(sign)을 동사로 말하면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그들이 행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31 절). 31 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자들이 모인 교회의 건물이 흔들리는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흔들리는 것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하늘의 권능들(하늘의 달과 별 등을 말함)이 흔들릴 것이다.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눅 21:26,27).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몸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능력으로 심판하실 그 재림의 날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재림의 날의 권능을 사도들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재림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눅 21:26),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도들은 부활하여 승천하여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 권능(뒤나미스, 행 4:33)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맡겨 주신 직분을 다할 때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큰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달려 갑시다. 기도를 부탁합시다. 함께 하늘을 향해 기도합시다.

물러서지 맙시다. 고통스럽더라도 직분을 완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삼위 하나님은 사도 그 시대에 적절한 기적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 적절한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기적적인 일을 하실 지는 주님께서 당신의 지혜 가운데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하게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소명의 자리로 나갑시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갑시다. 하나님은 말씀의 전신 갑주로 우리를 담대함으로 무장시키십니다 (엡 6:10-11). 우리의 입술로 손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 세상으로 나갑시다.

4. 고난 후에 교회는 더 성장 (32-37 절)

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사도들이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성도들은 물질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믿은 결과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물질적 형태로 눈에 보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언약 말씀에 따르는 언약의 공동체에 대한 구약의 비전이 신약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34 절).

하나님이 구약 백성을 축복하여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 15:5 절)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백성이 언약의 율법 말씀에 순종하여 7 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는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려 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십니다.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새 마음을 만드십니다. 복음은 선한 삶을 사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냅니다.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로 모였습니다(5,26,28 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 중에 한 사람 요셉 바나바는 악한 제사장과 레위인들로부터 갈라섭니다. 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이제 바나바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칩니다. 구약 시대의 레위인은 재산이 없고 구약 교회의 지원으로 살았습니다(신 18:8). 바나바는 교회의 도움으로 사는 신약 시대의 레위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사장과 레위인, 새로운 직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구약의 레위인이 이제 신약의 집사직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에 나눔의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사도들은 원래 요셉이었던 이 레위인의 이름을 “바나바”(위로하는 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 경제적 어려움을 위로해 주는 집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재산을 다 팔고 그리스도를 따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탐욕이 많은 부자 청년에게 하신 그 명령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눅 18:22)

재산을 우상처럼 섬기는 부자는 슬퍼하며 천국으로부터 떠나 갔습니다. 자기 재산을 안고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천국을 위해 재산을 사용합니다.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로 나누어 준 초대교회의 사건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 한 순간 천국의 완성형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후의 모든 교회는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나타난 정신을 계속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이든지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구제하며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대로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면 합니다. 시간과 재능을 교회와 성도에게 바쳐서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은 모든 성도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의 행동 안에서 집사의 기능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또 전임 사역자의 기능이 싹트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는 바나바처럼 교회를 위해 모든 삶을 바쳐야 합니다. 일반 성도처럼 자기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고 복종할 일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들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사단은 협박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마치 우리를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거짓말 협박합니다. 그들의 권위로 우리를 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의 거짓말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우리를 협박하고 두려움에 빠뜨리도록 사단은 일합니다.

위협과 협박 앞에 물러서지 말고 우리의 소명대로 행합시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시다. 특히 교회에 알려져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 담대함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주십니다.

말씀에서 성장합시다. 물질의 나눔에서 성장합시다. 우리처럼 약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해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사도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능력이 계속됩니다.

- ①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계속됩니다.
- ②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는 일이 계속됩니다.
- ③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계속됩니다.
- ④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는 일이 계속됩니다.
- ⑤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오셔서 능력 행함과 복음 증거함이 오순절 성경 강림 이후 계속됩니다.
- ⑥ 그리스도께서 채림하여 악한 자를 심판하고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미래의 일이 이미 시작하여 계속됩니다.
- ⑦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의 고난과 능력을, 이제는 몸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땅의 교회를 통해 계속하십니다.
- ⑧ 4 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5 장에 계속되는 것을 보여줄 것이므로, 그리스도와 초대 교회의 능력이 지금의 교회에도 계속됩니다.

<참고> 학문 없는(아-그라마토스, 13 절) 사람이 서기관(그라마투스, 5 절)보다 말씀을 잘 알고 전달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학문 없는(아-그라마토스, 13 절) 사도들이 서기관(그라마투스, 5 절) 보다 더 말씀을 잘 알고 전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이상히 여기며”, 타움마조, 13 절).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타움마조, 눅 8:25, 9:43).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보고 놀랐습니다(눅 4:2). 특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성전에서 대답하시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20:26). 그리스도는 몸은 하늘에 있지만 땅에서 사도들 안에 살아서 계속 일하시고 있습니다.

<참고> “동류(이디오스, 23 절 자기들 사람)”, “범인 (13 절, 이디오테스,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

두 단어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참고> 11 사도들이 있는 곳이 진동하고(흔들리리고, 살류오) 능력(뒤나미스)으로 복음 전파=예수님 재림 때의 능력이 흔들림(눅 21:26,27)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이 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살류오). 그 후 “권능으로”(뒤나미스)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을 미리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권능들(뒤나미스, 능력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하늘의 달과 별 등)이 흔들릴 것이다(살류오).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뒤나미스)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눅 21:26,27).

재림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눅 21:26),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도들은 부활하여 승천하여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 권능(뒤나미스, 행 4:33)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참고> 34 절, 가난한 자(엔테에스)가 없는 교회는 구약의 언약 공동체가 완성된 것(신 15:5)

교회에서는, “그 중에 가난한 자(엔테에스)가 없었습니다”(34 절). 하나님이 구약 백성을 축복하여 “너희 중에 가난한 자(엔테에스)가 없으리라”(신 15:5 절, 원문에는 4 절)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백성이 언약의 율법 말씀에 순종하여 7 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는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려 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 명령(prescription)과 서술(description)의 차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의 어떤 내용은 교회가 그대로 해야 하는 명령(prescription)입니다. 어떤 내용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서술(description)입니다. 한 순간에 일어난 서술을 모든 시대를 향한 명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시대에 교회가 행한 일에 대한 서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일에 담겨진 정신은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지켜야 할 일반적 원칙을 각 시대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 안에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배우고, 그 일반적인 원칙을 우리 시대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공유한 것은 그 시대에 특수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반적 정신은 교회가 물질의 나눔을 통해 함께 즐거워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각자의 성도가 자기 재산을 소유하면서 기쁨으로 헌금을 통해 서로 구제하는 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 전도하며 기뻐함
(찬송 384 장)**

2026-6-13, 토

맥락과 의미

5 장은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했고,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로 어떻게 헤쳐 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성령님은 사도의 손을 통해 심판하여 교회를 성결하게 했습니다(내부적 공격).

둘째, 사도를 잡아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은 기적으로 풀려나 복음 전합니다. 매맞고 풀려 났지만, 기쁘게 생각하며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외부적 공격).

두 사건의 사이에 있는 기록(12-16 절)은 교회의 거룩함과 성장에 대해 요약해 줍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부적 외부적 공격 속에서도 교회는 튼튼히 서 있습니다(샌드위치 구조).

- 1.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통해 교회를 공격(1-11 절)
- 2. 구약의 제사는 죄인과 병든 자를 바쳐 치유하는 것으로 계속(12-16 절)
- 3. 사도들을 감옥에 가둠: 예수님의 고난의 계속(17-32 절)
- 4. 매맞고 풀려 나면서 사도들은 기뻐함(33-42 절)

1.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통해 교회를 공격(1-11 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 중 얼마를 감추고 헌금했습니다. 그러고는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4 장 36 절의 바나바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헌신하고 칭찬받고 싶지만, 그런 희생은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4 절,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권한, 자유의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건 판 것의 전체를 바치는 것도, 일부를 바치는 것도 그들의 자유와 권한 아래 있습니다. 어떤 경우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양심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습니다. “사단이 가득하다.”(3 절)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성령님이 내리신 영적 진단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퍽박 가운데도 복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물질을 나눕니다. 이런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2:3, 4:31).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상당한 헌금을 하는 사람이 사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사단의 시험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헌신합니다.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섬김 이상으로 위선적으로 드러내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교회는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헌신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렀다. 사단의 도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합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합니다(8 절). 베드로는 그녀가 “주의 영을 시험한다”(9 절)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성령님이 죽였습니다.

성령님은 계속 교회 안에서 권징을 시행합니다.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생겨납니다. 초대 교회의 사도와 같이 오늘날 목사와 당회도 이러한 위선을 찾아내서 권징합니다. 말로서 권면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교인은 더 크게 권징합니다. 출교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감춘 것(3 절)은 구약 교회에서도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감추었습니다”(여호수아 7:1).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새 땅에서 첫 승리가 여리고 정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성을 돌기만 했지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태워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우상숭배와 음행과 폭력의 도시를 태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조금도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받는 바로 그 순간 아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털 옷을 감추었습니다.

신약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가나안 땅보다 더 좋게 발전합니다. 성도의 공동체,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우리는 재산의 전부를 바친다.”고 하면서 일부를 감춘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신약 교회에서 성령님은 돌을 사용하지도 않고 말씀 전파자의 말을 통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교회를 더럽히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에 동일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도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에 계속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을 싸 메어 나간 것과 같은 일이 구약 교회에도 이미 일어났습니다. 레위기 10 장에 제사장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불로 분향하지 않았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로부터 불을 보내서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들을 성소 앞으로부터 백성이 사는 진의 바깥으로 싸서 내어갔습니다(레 10:4).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인 교회 바깥으로, 성도들의 공동체 바깥으로 운반되었습니다.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는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하나의 보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엄한 심판이 교회 안에서 계속됩니다. 초대 교회에 눈에 보이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이후의 모든 교회에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느 시대에나 성령님이 보편 교회와 능력으로 함께 있을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보편교회에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합니다. 동시에 끝까지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도 충만합니다.

이 시대 교회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성도를 권면합니다. 징벌도 선언합니다. 교회의 정당한 선언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셔서 징벌하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두려움이 온 교회 위에,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11 절).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빌 2:12). 우리 자신과 교회가 순결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2. 구약의 제사는 죄인과 병든 자를 바쳐 치유하는 것으로 계속(12-16 절)

앞에 나온 교회 안의 죄악들, 뒤에 나오는 교회 바깥에서 오는 핍박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교회를 통해 계속 나타납니다. 교회는 성전의 한 곳인 솔로몬의 누각에 모였습니다. 성전 건물과 제사가 교회의 모임으로 대체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교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14 절).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서 “더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셨습니다. 수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교회가 할 일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와서 치료받게 했습니다(15 절). 전에 이 땅에 몸으로 계시던 예수님께 병자를 메어 오고(눅 5:18, 막 9:17,29,2), 주님이 치유하던 일이 사도들을 통해 계속됩니다.

“메고 온다”는 구약 성전에 제물을 “가져온다”는 데 사용한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방해를 받는 병자와 장애인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와 죄인을 치유하여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구약 제사를 성취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이 일을 계속 수행합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던 사도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기적이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성령님이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들이 없이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우리는 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계속 일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계속 영적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죄용서의 공로와 성령님의 거룩하게 만드시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즐거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병든 몸, 죄악된 몸, 그리고 물질을 제물로 바치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신구약 교회는 계속 이어 갑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나옵시다. 주께서 주신 은사대로, 기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합시다.

3. 사도들을 감옥에 가둠: 예수님의 고난의 계속(17-32 절)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풍성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9 절). 죽이려고 했습니다 (33 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심 때문에 사단이 가득했고, 산헤드린 공회에는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도 사실은 사단이 충만합니다.

기억합시다. 교회가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할수록 교회 안과 밖에서 사단의 충만함도 함께 일어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전에 예수님을 시기(마 27:18, 막 15:10)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빌라도에게 다시 고소하여,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며 핍박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21 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에 아침 일찍이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눅 21:38, 24:1, 22).

이날 아침 공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감옥 문은 잠겨 있는데,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사도들을 공회로

잡아들었습니다. 사단과 시기심이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눈이 어둡습니다.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피를 자신에게 돌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28 절).

29 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29 절).”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성령님도 그러하다”(32 절).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분노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사도들은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약속한 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가르치리라”(눅 12:11-12).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구재(말재주, 말솜씨)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눅 21:12-15).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오히려 악한 사람들의 헐박을 받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때 우리도 말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합시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증거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시다(32 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대로 말하고 살아갑시다.

복음을 “생명의 말씀”(20 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사용하여 성령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죄용서의 은혜, 중생의 성령, 양자됨의 굳은 확신을 주십니다. 복음을 성령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다.

4. 매맞고 풀려 나면서 사도들은 기뻐함(33-42 절)

사도들이 죽임을 당할 그 시점에 하나님은 섭리로 구출해 주십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에게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전에 일어난 사건과 연결하며 설명합니다. 전에 드다와 유다가 민중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들이 죽은 후 그 무리들은 자연적으로 흩어졌습니다.

가말리엘은 이 전례를 말하면서 산헤드린 공회에 권고합니다.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일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38-39 절)

우리도 진리대로 살 때 재판을 받기도 하고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기도 하십니다.

40 절, 산헤드린 공회는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40 절) 협박하고 내보냅니다.

41-42 절, 사도들은 이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불명예스럽게 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도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고난 받고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열심히 가정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진리로 가정을 세웁시다. 말씀대로 직장에서 살아갑니다. 기회 있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 본다면 슬퍼하지 맙시다. 즐거워합니다.

믿고 복종할 일

교회와 성도인 우리 자신을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명예욕이나 시기심의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던지는 유혹을 그냥 내버려 주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점점

채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악과 바깥에서 오는 고난도 하나님이 섭리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유혹과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교회를 정화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더 거룩하게 만듭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맙시다.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일단 단순하게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으면서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를 고난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고난을 받도록 특별대우를 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유혹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의 거짓된 헐박 앞에 얼어붙지 맙시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명과 직분에 집중합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
|--|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감춘 것**”(노스피조, 3 절)=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감춤**”(노스피조 여호수아 7:1)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교회가 성장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과 감춤(노스피조)은 구약 여호수아 때의 아간의 행동과 같습니다(수 7:1).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아간 자신이 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말하면서 감추었습니다.

<참고> 페로: 병자를 메어 올(5:15 절)= 헌금을 사도의 발 앞에 둔(4:34,37, 5:2)=시체를 메고 나감(역-페로, 5:6,10 절)

그런데 사람들이 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와서(페로) 치료받게 했습니다(15 절). 전에 이 땅에 몸으로 계시던 예수님께 병자를 메어 왔습니다 (페로, 눅 5:18, 막 9:17,29,2). 메고 온다는 구약 성전에 제물을 “가져온다”는 데 사용한 말입니다.

성도들과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사도의 발 앞에 두는 것도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페로, 4:34,37).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산을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두었습니다(5:2).

구약 성도들이 성전에 제물을 바친 것을 신약교회는 헌금을 통해 바칩니다. 헌금과 함께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칩니다. 병과 죄악을 제물처럼 가지고 올 때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계속 치유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헌금을 하면서도 성령을 속인 두 사람은 죽어서 교회 바깥으로 가져가 졌습니다(에크-페로, 메고 나간다, 바깥으로 가져간다, 6,10 절).

병든 몸, 죄악된 몸, 그리고 물질을 제물을 바치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신구약 교회는 계속 이어 갑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나옵시다. 주께서 주신 은사대로, 기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합시다.

<참고> 21 절, 새벽에(트로노스)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침(21 절)=예수님, 아침 일찍이(트로노스) 성전에서 가르침 (눅 21:38, 24:1, 22).

사도들은 새벽에(트로노스)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21 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에 아침 일찍이(트로노스)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눅 21:38, 24:1, 22).